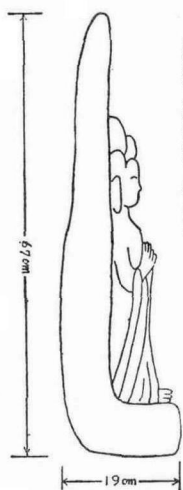


萬壽寺 三尊石佛 側面圖



萬壽寺 三尊石佛 側面圖

는 것이어서 이것은
必是 近處 廢寺址에
서 移置한 것으로 推
定되며 이 三尊石佛
은 花崗石材를 舟形
光背式으로 다듬고
下部에는 長方의 臺

座를 만들어 前面에 三尊立像을 彫成한 것으로서 三體 共히 高肉彫의 浮

刻인데 本尊은 阿彌陀如來로서 天衣는 通肩이고 裙衣는 肉厚한 線을 그

리며 足部까지 이르렀고 手印은 右手는 心部에 올려서 拇指와 새끼손가

락을 맞대어 圓을 만들어 外掌하고 左手는 腹部에 올려서 拇指를 손바

다으로 꾸부려 仰掌을 하였으며 兩脇侍菩薩은 觀音과 勢至로서 머리에

는 三面冠을 戴하고 天衣는 兩手に 걸쳐 背面으로 돌며 遞減되었고 裙

衣는 腹部에서 丸弧를 그리며 足部에까지 肉厚한 線을 維持하고 手印은

兩菩薩이 모두 合掌을 하며 恭禮를 이루고 三尊 모두가 臺座에 발을 彫

刻한 正立正視의 尊嚴한 氣風을 나타내고 있는데 首部에서 切斷은 되고

顔面이 磨滅은 甚하나 거의 原狀을 把握할 수 있고 彫成年代는 相當히

高古한 作品으로 推察된다.

原石의 高 六七 cm 上幅 五二 cm 下幅 五七 cm 側面厚 一九 cm

本尊佛 高 六三 cm 兩脇侍菩薩 高 五一 cm

棠下題名記

洪 思 俊

當分館所藏의 棠下題名記는 慶尙道의 歷代監司의 名單을 記錄한 冊名
이다. 이 表題로 冊이 만들어지기는 李朝世宗七年(一四二五)에 當時 都
觀察 黜陟使로 在職한 河演의 所作임을 同書序文에서 알 수 있다.

題名의 最古年代는 高麗 一代 文宗 三十二(三三)으로 記錄된 年 戊午(頭註
에 宋 神宗 元豐 元年과 遼 道宗 大康 四年이 記錄된 西紀 一〇七八年에서 始
作해서 當時까지 三四八年을 逆算題名하여졌고 其後로 歷代 觀察使가 題
名을 繼續한 것인데 李朝 十九代 肅宗 四十四年 戊戌(一七一八)까지 記名
해 있다. 總記 年數를 計算하면 六百四十一年間이 存續되었으며 總人員
(缺員之有)은 八六七名이다. 年數에 比해서 人員이 많은 理由는 高麗時
代에는 春夏와 秋多으로 一年을 二回로 分해서 中央에서 人員派遣이 있
어서 人員이 많은 것이다.

冊張數는 題名한 것이 八五枚와 序文二枚와 咸豐九年云云의 紙張一枚合
八十八枚이며 冊規格은 縱 八四 cm 橫 四〇 cm 厚 七·五 cm로 冊高이 約 三十
斤可量이고 冊表紙는 靑綠色 비단으로 冊가위를 하였는데 많은 흠이 있
고 冊綴은 늦의 長片을 上下에 대고 五個處(漢文冊綴과 같이) 亦是 늦
쇠로 綴여 綴하여 졌다.

이곳에 한가지 疑問視되는 것은 맨첫장 裏面에

(李朝 哲宗 西紀 一八五九)

『咸豐九年己未七月曆成新案奉安祇林寺』

라 하였고 다음 序文末에는

(世宗 七年 西紀 一四二五)

『皇明 洪熙 元年 閏 七月 丙辰 敬齋 普陽 河演 淵亮 題』

하고 그 아래 款印이

찍혀 있으며 다음 別

行으로는 朱線內에

墨書大字로 本營慶

州府置라

있다(寫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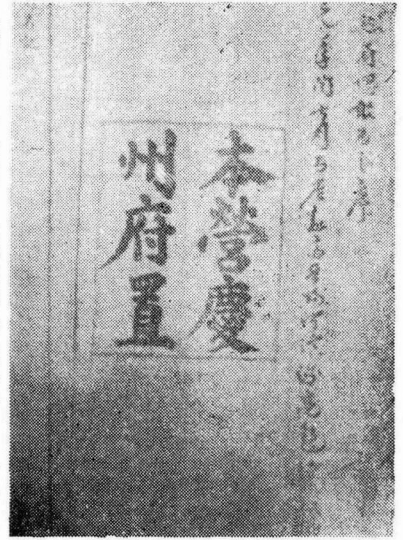
三足鼎形의『敬齋』

雅號印과 네모난『普

陽世家印과 矩形의

『河演』印이며『淵亮』
의 字印이 捺印된 것





이나 厚紙임을 보아 河演所作이 分明하다. 前張에 咸豐九年 云云이라한 것은 或은 舊案에 一張 (종이가 새롭고 薄함)을 加入한후 新案이 釐成된 年月과 奉安場所를 記錄하여 둔 것으로 史料된

다. 그리고 序末에 本營慶州府置라한 것으로 보아 當時 本營은 慶州行營은 大丘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棠下題名記는 河演序文中에 二部를 作成하여서 一部는 本營에 一部는 行營에 備置한다고 있은즉 本冊은 本營것임을 알 수 있고 行營所有 것이 또 있을 것이 짐작된다(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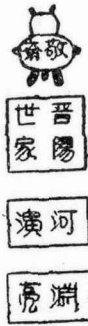
이 芳名錄은 前記한 바와 같이 高麗文宗三十二年에서 李朝肅宗四十四年 兩王朝에 걸쳐 記名된 歷代「營主」들임은 勿論이나 官職이 改變된 年代 間或 改變其他事態가 變할적에는 簡略한 註記가 실려있어서 歷史 學徒의 參考資料가 되는 典籍임가 생각한다.

(序文如左(一九六二、七、五))

慶尙道營主題名記序

竊謂自古帝分憂定化 文托使巨 三代所命 往欽汝諧 周之風」化 謳吟諷誦 謹分直指綉衣使威州郡 唐遣節度使 復授」行 臺之命 宋置觀察使 且有出入均勞之旨 稽之本國 高麗」之初分遣宰相 爲諸道節度使 專制方面 以行黜陟其後」改以三品以下官 爲都部署使 按察使 按廉使之任 糾察庶務 其任最重 及其末流也 朝廷之紀綱頹廢 自元回以至方鎮牧府 親 按廉不以王人大體爲念 反以秩卑小節之爲廉 無所畏彈 東 杖不謹 爲按廉者 嘻區區於簿書錢穀之間 不能行 其黜陟陵夷 靡然濫觴滔天 至我」 聖祖戊辰 學義之後 欲新弊政 以備府以上爲都觀察 黜陟使 擇朝官爲經歷都

< 26 >



事俾之統察軍民之務 以明要最之法 二品以上留囚」申請 三品以下依律直斷 又爲按廉使更相迭遣之制 振起頹綱 以致」今日 雍熙之記何其盛哉 吾以庸資加承」重宰 欲戮前點」之通籍 問其傳久之者 皆因倭寇而泯滅 今本營慶州 搜得公私之籍 但有吏 係前注簿孫熙者 納以家職之錄 今幸得此成爲通籍上書」 中朝與本」朝之年譜下者 各年先」三姓名 稱爲營主 題名記 繕簿二部 一品本營 一品行營 以便後考 嗚呼宰相之職 代王 理物使」命之任 承」流布」 德時政之得失 生民之休戚 係焉 歷代記東職 此之由不可不謹也」 稽前轍之是非 施諸事業之懿美 則吾今採摭 以題」名 豈不多補制後來

之君子哉 吾亦藝名 必居一於是 非之耳」 赧然有愧 敢爲之席 皇明洪熙元年閏七月丙辰 敬齋晉陽 河演淵亮題



(註) 關野貞 朝鮮遺蹟一覽 (地方別) 大邱條에 乙 大邱觀察道棠下題名記 自第二冊 至第五冊 朝鮮太祖元年 一 現時洪武二五年 一 元中九年 一 三九二라고 보이는 바 그所在은 알 수 없다.

資料

羅麗石佛 五例

黃 壽 永

(1) 磨崖立像 慶北 漆谷郡 仁同面 黃桑洞 (을고개) 에는 東向한 如來 像이 있는 바 높이 約 九米라한다 (慶北大博物館서 調査 本誌에 紹介로 하다)

(2) 坐像 二軀 慶北 醴泉郡 龍門面 신동 에는 新發見의 坐像 二軀가 家屋 內에 奉安되어 있는 바 臺座가 具備되고 光背도 一個가 있는 바 新羅